

ISSUE

부시 · 미야자와 도쿄 선언이

신국제 기술 질서 개편에 주는 의미

황 혜 란

(동향 분석 연구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수상은 지난 9일 두 차례에 걸친 정상 회담에서 미 · 일 양국의 글로벌 협력 관계에 관한 도쿄 선언과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行動計劃>을 발표했다. 이번 도쿄 선언은 경제와 무역, 과학 기술의 환경과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쿄 선언 탄생의 실질적인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높은 기술 혁신 능력과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상적으로는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의 심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무역 불균형의 해소가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시각이다. 미국은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 輸入自由化와 일본 해외 자회사의 現地調達擴大,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협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성을 基本原則으로 하고 ①수입확대책과(일본 내의 수입 촉진 지역 설치, 수입 협의회 활동 강화, 수입 자금의 용이한 조달을 위한 채권 보증 제도 및 수입 촉진 credit line 제도의 창설 등) ②미국 기업의 대일 직접 투자 촉진책 마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시각들이 파악하는 바와 같이 管理 貿易을 통한 일본 기업으로부터 미국에로의 이익의 일부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산업 부문별 제안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제 부품과 미국 차의 수입 확대와 더불어 공정 거래 위원회를 통한 系列의 조사를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미국 부품 공급업자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 형성을 위한 미국 부품업체 엔지니어의 일본 내 연수 및 일본 기업의 在美 R&D 확대 등을 明示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유리 산업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통해 외국 기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의 시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 판유리 산업에서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연계가 강해 이것이 불공정 거래의 주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이는 일본 혁신 시스템의 주요 내용인 系列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외부성(externality)의 획득을 不正去來로 상징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과의 새로운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언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노력이 단기적 역조액 축소라는 범주를 넘어서 양국의 혁신 체제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마찰 조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국제 기술 규범 형성 노력의 일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이미 기업 레벨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원칙을 국가 수준에서 'Global Partnership' 이라는 개념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준비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즉 민간 협력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한다는 원칙 하에 생산, 판매 및 공동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business global partnership의 형성을 목표로 설

정하고, 서로의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①연구자 및 기업인의 교류, ②일·미 차관급 경제 협의회 설치 등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조기 경보 기능의 강화, ③교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미 센터의 하부 구조 구축 방안이 제안되었다.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의 중심 내용이 결국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techno-globalis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미·일 양국이 향후 진전될 技術同盟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선언에서는 방위 기술 분야의 雙方向的 移轉과 지구 規模變動에 관한 공동 연구의 계획, 기초 과학 주요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경쟁 前 段階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합의 등이 명시되었다. 이는 이후 양국 간 기초, 공공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R&D의 확대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장 큰 현안이었던 초고속 초대형 가속기(SSC)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의 분담요구와 더불어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프로젝트의 재편성을 명기하고 있으나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본 내의 시각은 몹시 회의적이다.

첫번째 지적된 양국 경쟁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미국측의 의도와 두 번째로 지적된 미국의 협력에의 의지가 일견 상충되는 것같이 보이나 이는 결국 세계 경제 질서에서 패권 상실의 위협을 느낀 미국이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하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각국의 투자 환경이나 시장 관행 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투자의 제한이나 부품 공급업자나 유통업자와의 강한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비즈니스 관행이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일본적 관행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방식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자유 무역과 경쟁원리의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정부 개입과 조정에 의한 관리 무역 방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는 일본의 위협적 성장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과 이를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조정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을 통한 경쟁’이라는 세계화 원리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선언의 실행 여부는 결국 양국 간의 이해와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일의 비즈니스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관계가 진전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양대 경제 대국의 협력이 기술 동맹 중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ISSUE

▣ 도쿄 선언 행동 계획 중 과학 기술 관련 주요 내용

<동경 선언>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국의 지위에 유의하여 美日 양국 정부는 양국 사회 및 인류의 이익을 위해 호혜적 접근 하에 기초 연구를 포함한 과학 기술 협력을 확충할 것을 서약한다. 美日 양국 정부는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를 증대시킬 것을 약속하고 이 과제를 다루기 위한 수단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형성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행동 계획>

○ 정치, 안전 보장에 관한 연구

- 미·일 상호 방위 원조 협정에 기초하여 로켓 엔진의 공동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투 차량용 세라믹스 엔진, 鋼鐵艦用 클로즈드 루프, 消磁 기술, 艦艇-장갑차 兩用 선진 鋼材 등의 방위 기술 분야에 있어서 공동 연구에 관한 검토
- 방위 분야 기술의 쌍방향의 移轉을 일층 촉진
- 조기 경계 감시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일본의 中期 방위력 정비 계획은 4機의 조기 경계 官制機를 정비하는 데에 있다. 일본은 새로운 타입의 조기 경계 관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의 취득 가능성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고 미국은 이 노력을 지원

○ 과학 기술의 발전을 향한 협력

- 지구 規模의 변동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일본 및 미국의 연구 commitment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재확인하고 강화
- 지구 규모의 변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지역적 approach 및 지구 규모의 변동에 관한 지역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설치
- 인공 위성에 의한 리모트센싱 등의 尖端 기법을 통하여 지구 규모의 변동의 관측에 협력
- 지구 규모의 변동에 관한 국제적 데이터 교환에 관하여 협력

○ 주요 국제 프로젝트

- 초전도 초대형 가속기(SSC) 프로젝트의 기술적 및 그 외의 중요한 관점을 검토하여, 일본의 참가가 가능하게 되는 국제 프로젝트로서 이 프로젝트를 재편성하는 방도를 고찰하는 공동 작업 group을 설치.
- 참가국에 의한 공헌을 통하여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을 추진
- 인간 유전자 해석 공동 연구에 협력
-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의 공학 설계 활동의 성공을 확보
- 금세기 말까지 우주 기지 후리타무의 常時 有人 능력을 달성하는 commitment를 재확인.

○ 경쟁 前段階의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 지적 생산 시스템(IMS) 및 光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포함한 전단계의 제조업 및 그 외의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
- 연구자 교류의 촉진
- 연구자 및 기술자의 교류 촉진의 일층 진전을 도모하도록 요구

○ 산 업

- 일본 정부 부문에서의 외국 기업의 컴퓨터 조달 확대
- 판유리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 접근의 실질적 증대를 위한 제반 조치와 공정 거래 위원회의 조사 요구
- 미국 자동차 연간 2만 대 이상 선으로 수입 확대.
-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현지 조달 및 수입 목표를 확대, 94년에 190억 달러선까지 달성